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관리에 본격 나선다

대전 서구는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폐수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내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연휴 전인 2월 9일부터 13 일까지는 특별감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행위 발생 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감시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단국대 C-RISE 사업단 보령

수소산업 미래연대

보령시가 ‘보령형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보령시는 ‘보령형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에너지 미래전략 수립’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단국대학교 C-RISE 사업단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 추진됐으며, 보령시의 산업 인프라와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은 보령시와 단국대 C-RISE 사업단이 그동안 공동으로 고민해 온 보령형 수소 특화 모델의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인 지역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술 고도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유망 기업 유키 ▲관련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령시가 보유한 보령엔지니어링, 한국중부발전(주) 등 에너지 인프라와 단국대 등 학계의 기술 지원이 결합된다면 보령이 대한민국 청정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보령시가 청정에너지 중심의 미래형 산업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소산업이 핵심 죽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보령시는 단국대 C-RISE 사업단 등 협력 기관과 함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날개’ 달았다

5440억 원 투입 충남 당진 석문 스마트팜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충청남도가 지난해 당진에 유치한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가 정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산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스마트농업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당진과 금산이 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성과 부지 선정 적정성, 계획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평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 당

진·금산 등 전국 7곳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뽑았다.

당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지난 해 6월 김태희 지사가 오치훈 대한체육회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맺은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 한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대상이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대한체육회 2028년까지 5440억 원을 투입해 석문간척지(석문면 통정리 일원) 내 119ha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

남북과 전남북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밸리로, 각 면적은 20ha에 달해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쥐게 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운실 △청년 분양 운실 △일반 분양 운실 △모델 운실 △육묘장, 가공·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선별 포장센터 등 공공 지원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8년 인근에 들어설 와이케이(YK) 스틀 공장 폐열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연간 1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확보하는 연간 3만 1000톤의 탄소배출권은 YK스틸에 제공,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으로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인허가 의제, 공유재산법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금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금성면 파초리 일원 11.1ha 규모 임대 스마트팜이다.

202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고체류와 액체류 등을 생산하고, 경영 실습을 제공해 청년농 유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취약계층 1만1천여 세대 지원한다

동구, 설 명절 맞아 11,579세대에 2억 3천만 원 규모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돋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명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지원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세대와 기타 취약 가구 등 총 11,579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만 원 상당, 약 2억 3천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지원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성금과 ‘천사의 손길’ 후원금이 함께 활용돼,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지원 대상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선정되며,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일부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명절을 앞둔 생활 실태와 안부를 함께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돌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

박희조 동구청장은 “설 명절은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명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구는 지난 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숙)로부터 2,070만 원의 성금을 기탁받은 바 있다.

한편 동구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26년 1학기 동구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단순 취미 과정을 넘어 전문자격 취득과 실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총 16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3월 3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 급증…해외여행 주의보

세종시, 인도 등 발생 국가 방문 시 동물접촉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으로, 지난해 9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까지 인도 외 다른 국가로의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은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음료 섭취로 전파되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등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신경계 증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관리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해당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 가능성 있는 음료 빛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금지 ▲아픈 환자 혈액 및 체액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로 감염관에게 신고하고,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여행 전·후 개인위생 관리와 여행력 공유 등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4일 하나은행, 세종 신용보증재단과 ‘세종형 상권 이은금 융·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돋고 특히 4대 전통시장, 삼겹점, 골목형 상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위해 10억 원을 특별 출연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세종시는 대출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낮춘다.

전통시장, 삼겹점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우대금리 적용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채봉 기자

충북도 작은불씨도 놓치지 않는다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산불조심기간(1.20~5.15)을 맞아 도유림 산불방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산불방지 활동은 지난 1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단속,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5건이다. 이중 논·밭두렁 소각과 임산자 실화 등이 15건으로, 60% 이상의 산불 요인이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1건이 도유림에서 발생했다.

이에 연구소는 산불감시원 10명, 산림재난대응단 2개 조 8명을 8개 시·군에 위치한 도유림에 배치하여 단속공

무원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도유림 인근 민가나 등산로 입구에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산불 예방 확성기(캠페인) 방송 등 홍보 활동은 물론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활동과 드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영숙 소장은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한 봄철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실수로 낸 산불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 집단급식소, 뷔페, 대형음식점, 계절별 음식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 및 시기별 식중독 예방 홍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